

사탄의 패배

(계 12:7-12)

앨런 P. 로스
샘포드대 비슨신학대학원

김광모 역
성서침례대학원대학교

들어가는 말

“오 주님, 얼마나 오래 동안 참아야 합니까?” 모든 시대의 성도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시편기자들은 반복해서 “오 주님, 얼마나 오래 동안 참아야 합니까?”라고 외쳤습니다. 우리 기도는,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주변 세상에서 선과 악의 끊임없는 투쟁이 끝나길 간청합니다. 하늘에서, 제단 아래 있는 성도들 역시 자신들의 죽음에 대한 원한이 해결되길 간절히 기다리면서 “오 주님, 얼마나 오래 동안 참아야 합니까?”라고 외칩니다.

“오 주님, 얼마나 오래 동안 참아야 합니까?” 악한 자가 멸망하기 전에 그의 모든 사악한 행위가 끝날까요? 구속받은 사람들이 완전한 구원의 상태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통치에서 영광스럽게 되려면 얼마나 오래 참아야 합니까?

최종적 승리가 있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실히 압니다. 오늘날 우리는 세상 종말의 시작에 관한 예언을 새롭게 바라봅니다. 우리가 하려는 일은, 그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 알기 위해 읽고 있는 소설의 마지막 장으로 훌훌 넘기는 것과 같습니다. 순수하게 읽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련과 시험, 죄와 범죄, 고통과 고난을 겪는 삶을 사는 우리는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길 원하십니다. 한편 여러분은 그 일이 잘 될 것이라고 믿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 예언을 보면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어도 볼 수 없는 시간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는 후에 녹화경기를 봤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경기에 대한 저의 기쁨을 저해하기는커녕, 최고로 기쁘게 했습니다. 공을 놓치거나 실수하는 경기에 손톱을 물어뜯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는 확실합니다.

계시록 12장에 기록된 예언은, 흑암의 왕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상에서 고난의 삶이 결국 끝난다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사탄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는 패배자입니다. 세상 종

말의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는 확실하다고 격려합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계시록을 멀리합니다. 계시록이 우리 신앙에 중요함에도 멀리하는 것은 사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살펴본다면 이해하는데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 그것은 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2장은 시대들을 거치는 놀라운 예언적 신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돌이켜봄으로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출산하는 여성으로 그려집니다. 사탄은, 그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하늘에서 온 천사 삼분의 일을 이끄는 사납고 무서운 용으로 그려집니다. 용이 태어난 아기를 삼키려 하지만, 아기는 땅을 다스릴 메시아가 될 운명입니다. 땅에서 그의 일을 한 후, 이 아기는 하늘로 올리었으며, 여성은 광야도 도망했습니다. 악한 자는 허를 찢립니다.

이제 본문 구절에서, 장면은 악한 자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늘에서 추방되는 미래로 바뀝니다. 하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일은 영원한 기쁨의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종말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박해와 멸망의 소름끼치는 때가 됩니다. 사탄은 자신의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되는 것에 초점을 두겠습니다. 곧, 종말의 확실성에 관한 예언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에 순종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기록된 예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우리를 위한 존재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존재들보다 많으며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우리를 대항하는 자보다 위대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사탄이 패배한다는 예언을 보길 원합니다. 따라서 낙담하거나 두려워하며 살기보다 여러분의 영적 힘을 새롭게 하며 그리스도를 통해 확신과 안전 가운데 사시길 원합니다.

강해

I. 하나님은 악한 자를 추방하신다

드디어 종말의 시작입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악한 제국의 총수를 무찌르는 별들의 전쟁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느끼는 것 이상의 보다 큰 공동체에 속한다고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천사, 천상의 군대, 세상을 파괴하는 능력을 가진 천사들의 투쟁을 상상하기 어렵지만, 기술하는 그대로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대한 간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섬기는 일로 오르내리는 천사들에게는 있습니다. 어두움의 세력에 동조하는 천사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처음 세 구절은 놀라운 드라마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활동은 없습니다. 이

것은 하늘에서 엄청난 규모로 치명적인 갈등입니다. 우리는 참여자, 갈등의 특징, 그리고 결과를 근거로 이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A. 참여자는 미가엘과 사탄 및 그의 천사들이다

한편에서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전투에 출전합니다. 다른 편에서 용과 천사들이 맞서섭니다. 본문은 용이 전쟁을 벌이며, 미가엘이 그와 대결한다고 기술합니다. 사탄은 때가 가까운 줄 아는 듯합니다. 그래서 지존자처럼 되고 싶어 하늘을 마지막으로 공격합니다. 그의 묘사에 주목해 봅시다.

사탄. 이 장에는 사탄에 관한 몇 가지 특징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용, 옛뱀, 마귀 및 사탄, 세상을 미혹하는 자.

1. 용. 목시적 이미지는 강한 왕과 정복자에게 짐승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용 이미지는 공포와 파멸의 이미지입니다. 사실 그는 해룻을 통해 아기 예수를 죽이려 시도한 배후 세력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 이미지는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박해한 자에 대한 인물구성으로 이 장에 계속됩니다. 그의 첫 번째 이미지는 파괴자 이미지입니다.

2. 옛뱀. 창세기 3장을 언급합니다. 성경은 처음으로 에덴동산에서 어떤 동물이 참여했다 할지라도 유혹자는 사탄이었다고 분명히 밝힙니다. 진귀한 돌 사이를 거닌, 에덴동산에 있던 존재가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가 첫 사람들을 속였으며 인류와 땅에 저주를 가져왔습니다. 그에게는 좋게 말할 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대단한 유혹자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의 아버지입니다.

3. 마귀 및 사탄. 이 용어는 이 존재를 대적자, 곧 박해하는 대변인으로 기술합니다. 이것은 변호사 농담이 아닙니다. 스가랴서 3장은 우리에게 그의 책략을 보게 합니다.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흰옷이 아니라 더러운 옷을 입고 서있는 것을 봅니다. 그 목시적 환상은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 관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용서 받아 세상에서 제사장적 사명을 회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반대하며 곁에 서 있습니다. 본문은 사탄이 “대적하기 위해” 곁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사탄의 책망에 대응하십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호와께서는 그 비난에 동의하십니다. 여호수아, 곧 이스라엘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소든 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불에서 꺼내셨습니다. 이 작은 드라마는 사탄이 항상 고소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보여줍니다. 욥기 1장을 보면, 모든 천사들이 천상 법정에 등장하고, 사탄이 그들 중에 나옵니다. 그는 하늘에 나타나, 소리를 내며, 밤낮으로 고소합니다.

그의 고소가 사실임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사악한 거짓장이 사탄은 중상하며 이 사실을 이용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변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비난을 위해서가 아니라 빛이 그의 피로 모두 지불되었다고 선언하시기 위해 앞으로 나오십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때 성공적입니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의심하게 합니다. 우리 죄가 아주 커서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다고 생각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가 죄와 두려움으로 휘청거리게 하며 낙담시켜, 절망의 가장자리에 서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의 증거가 늘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영원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자신을 어떤 식으로 변장해도 그는 항상 적입니다. 제가 사는 곳에는 늘 감탄하는 매 한 마리가 있습니다. 바라볼수록 멋진 새입니다. 그러나 그 새는 약탈자입니다. 온 종일 사냥합니다. 가련한 들쥐는 매를 피하지 못합니다. 매는 삼시간에 내려앉아 먹어 치웁니다. 들쥐가 연대해도 매와 맞서지 못합니다. 들쥐가 위험을 피해 도망하면 매도 또 다른 작은 동물을 찾아 떠납니다. 사탄은 삼킬 자를 찾아 헤맵니다.

4. 세상의 사기꾼. 사기의 힘을 아십니까. 사탄은 천사 중 삼분의 일을 자기편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세상의 상당부분을 우상숭배의 어두움으로 끌어들이며,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거짓종교, 거짓 세계관, 인위적이며 모조적인 영적 탐구로 가득합니다. 이것들은 이 세상 신이 만든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눈을 멀게 합니다.

사탄은 이 일의 명수입니다. 자신을 빛의 사자와 가장하여, 진리와 관련하여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에게 진리가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거절하고 죄짓는 사람들은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 속합니다.

사탄은 세상을 속이며 자신을 두고 거짓말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 대한 거짓말을 믿게 합니다. 따라서 치명적인 두려움으로 떨게 합니다. 사탄은 강력한 힘으로 교활함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사탄은 전지하지 않으며, 편재하지 않으며, 전능하지 않습니다. 많은 지식과 능력, 많은 경험이 있을 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혹은 죄를 판결하는 능력적인 일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종속되며,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해 도망칩니다.

이것은 사탄과 그의 일에 대한 생생한 묘사입니다. 이 모든 것과 관련하여 슬픈 점은 사탄이 아주 쉽게 사람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를 위해 그의 일을 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속이며, 비방하며, 고소하며,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와 그의 일에 좋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위하 그의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가엘. 다른 쪽에는 미가엘, 유다서에 따르면 천사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사에 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미가엘은 다스리는 천사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편에서 싸우는 천사들이 “그의 천사”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전통에 따르면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는 일곱 천사장이 있습니다. 성경은 미가엘과 가브리엘을 언급합니다. 사탄도 범죄하기 전에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름부음 받은 계류, 곧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 무리인 계루빔의 수장

이었습니다. 이것은 천사의 한 계급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를 탈취하고자 했다고 사색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자 이사야와 에스겔의 말이 지상적 권력자 배후에서 이런 영적 거만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곧, 내가 지존자와 같아 질 것이다.

우리는 미가엘에 관해 두 가지를 압니다. 그는 힘있는 천사, 종종 용을 죽이는 자, 곧 사탄과 대결하는 자로 묘사됩니다. 또한 그는 이스라엘의 수호자입니다. 그는 모세의 시체를 두고 사탄과 논쟁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사탄과 그의 군대를 하늘에서 몰아낼 것입니다.

B. 대결의 특징은 영적 전투이다

사탄이 주위에 있으면, 침도 평화도 잠잠함도 없습니다. 그는 야망적입니다. 그러나 힘을 얻으며 삶을 파괴하며 고통과 슬픔을 증가시킵니다. 히틀러가 행한 대량 학살과 대파괴의 유린은 사탄이 기회가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바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가 신적 힘을 가지는 한 천국을 지옥으로 그리고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

분명히 사탄은 하늘에 접근하지만, 하나님의 존전에서 제한적으로 말합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말하면, 힘으로 하늘을 차지하려는 듯합니다. 지옥문이 하늘에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만, 미가엘이 그의 천사들을 소집하여 사탄을 추방합니다.

C. 결과는 악에 대한 승리이다

사탄과 그 무리들이 하늘에서 추방당할 것입니다. 다시는 그곳에 접근하지 못합니다. 잠시 그것을 생각해 봅시다. 비난하며 변호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의 용서를 상기시킴으로 그들을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대변하는 일은 법정에서 추방되고, 다시는 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자랄 때 로스엔젤레스에 있는 법원 주위를 서성인 심술궂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하여 시민을 붙잡았습니다. 누군가 도로를 횡단하면 그를 붙잡아 법정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누군가 거리에 침을 뱉으면 그를 붙잡았습니다. 결국, 판사는 이 일에 싫증나, 그를 법정에 접근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사탄의 고소를 그렇게 처리하십니다.

고소를 중단시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이사야가 이전 것은 잊힌다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기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들을 제기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그 일은 끝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하늘에서 추방될 때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땅에 감금됩니다. 미친 개를 붙잡아 담장에 매어 둔 것과 같습니다. 담장 밖에 있는 사람들은 편안해하며,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담장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잠시 존재합니다. 그는 남은 시간이 짧으며 끝이 오고 있음을 압니다. 사탄은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시기 전에 가장 어두운 때를 만듭니다. 세상을 하나의 세계 종교 아래 연합시킬 것이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억압할 것

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악한 것입니다. 그는 그가 끝장날 것을 압니다. 그러나 가능한 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굴복시킵니다. 동맹국이 그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도록 자신의 나라를 파괴하려 한, 히틀러의 방화정책을 생각나게 합니다.

II.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사람들은 그들의 영원한 찬양을 시작한다

A. 구원의 완성을 찬양한다

하늘에는 소리가 있어 말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은 구속 받은 사람들의 소리입니다. 그의 형제들은 땅에서 사탄의 고소를 받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성도는 사탄의 공격과 고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쁨은 더 큼니다. 이제 고소자가 추방되었기에, 그들은 구원의 큰 날이 먼저는 하늘에서 그리고 잠시 후에는 땅에서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기도에 대한 응답은 “당신의 나라가 임합니다”입니다. 나라의 권세와 통치 그리고 능력이 인자에게 주어져 그가 다스리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에 관한 다니엘의 환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께 한 제안, 곧 예수님이 그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를 주겠다는 알팍한 제안과는 분명한 대조를 보입니다.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을 뜻합니다. “능력”에 관한 언급은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능력을 입증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의 절정의 시작입니다.

B. 구원은 이긴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1절에는 사탄에 대한 승리의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1. 승리의 기초는 어린양의 피입니다. 이 진리에는 두 국면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일을 정복하셨습니다. 둘째,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습니다. 사탄은 어린양의 피에 어떤 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어린양의 피는 죄를 정결케 하며 죄인을 용서합니다. 그 피는 사탄의 고소를 무력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을 순수하게 하며, 또한 영적 승리를 가능케 하기 때문입니다.

2. 승리자의 외적 과정의 그들의 증거 말입니다. 속죄 피에 대한 증거, 곧 복음 선포는 사탄의 일을 파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

거의 말씀은 사탄의 거짓말을 폭로하며, 진리를 선포합니다. 예를 들면 사탄은 죄를 좋아하게 하지만, 십자가는 그것의 고통과 수치를 드러냅니다. 사탄은 진리의 말씀의 증거에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3. 승리자의 내적인 안정적 태도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충성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은 생명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충성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목숨 부지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살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순교자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죽음, 곧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제거되었습니다. 그는 욕에 관해 말했습니다. “그의 몸을 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들이 자신들의 생명보다 죽음을 택했다고 말합니다. 한 사람이 사역의 전성기에 넘어졌습니다. 그것은 사탄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그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그를 섬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C. 하늘에서 기쁨은 땅에게 화를 뜻한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 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즐거워하라는 요구는 불완전하게 응답되는 요구가 아닙니다. 사실 명령형은 수사적이며, 구원으로 인해 나오는 자발적인 즐거움을 기술합니다.

결론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이 성공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그는 망합니다. 우리가 사탄과 최후 전투를 벌이지 않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사탄과 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매일 삶에서 영적 전투를 합니다. 규모는 작지만 원리는 같습니다. 장면은 하늘이 아니라, 가정, 가게, 학업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따르면 그 전투에서 승리하며 사탄이 패한 것을 압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그에게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마귀와 대결하여 그의 일을 단절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피해 도망칩니다. 저는 그것이 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상 순례자의 삶을 사는 동안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 전투 상황을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사탄이 패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제 이름이 죄와 실패의 모든 목록과 함께 제시될 때 그리스도의 피가 그 모든 것을 담당합니다. 제가 천상 법정에 들어가는 것은 그 흘린 피에 기초해서입니다. 사탄의 고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근거하여 용서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비난하려 합니다. 그러나 어린양의 피 때문에 할 수 없습니

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이 핵심 주제에 대한 지속적 목상이 죄로 인한 두려움을 치유합니다.

둘째, 하신 말씀은 악한 자를 무찌르는 도구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말이 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속죄의 진리를 증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검입니다. 이 검에 의해 사탄의 능력은 무기력해 집니다. 우리는 그와 평화를 맺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의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회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말씀의 증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결과를 선언해야 합니다.

셋째, 어떤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전적 헌신을 할 때, 시련과 환란 심지어 사망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속히 혹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차적으로 우리는 우리 사람을 그의 뜻에 일치시킵니다. 우리는 비틀거리며, 머뭇거리며, 동요하며, 혹은 지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위기가 닥칠 때 그리스도께 충성이 최상의 힘입니다. 바울이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했듯이, 우리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확신합니다. 아멘.